

사용자 중심의 가구를 만드는

# 아세르비스의 '뉴 컨셉'



1. 2. 사이드보드. 가구 뒷면에 구멍을 내어 조명원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도록 했다. 문을 열면 문 자체가 아래 쪽으로 내려오면서 선반이 되므로 물건을 넣고 빼기 쉽다.



미니멀리즘 조각을 연상케 하는 아세르비스의 '뉴컨셉(NewConcept)' 컬렉션은 그 외형은 물론, 상황의 미학(situational aesthetic)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미니멀리즘에 더욱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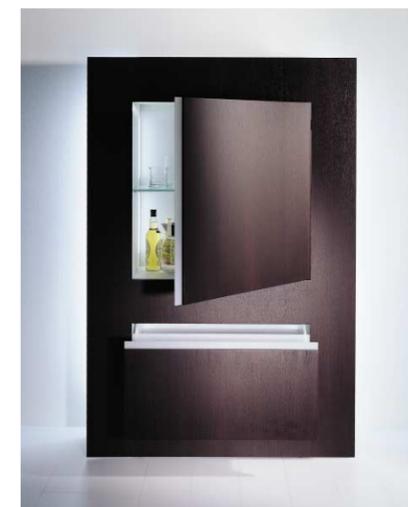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아세르비스 인터내셔널(Acerbis International spa.)의 대표이며 디자이너인 로도비코 아세르비스(Lodovico Acerbis)의 디자인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라는 덕목 이외에 사용자의 관심과 취미 등 제품을 둘러싼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명성을 얻어왔다.

그의 최근 프로젝트 '뉴컨셉'은 사이드보드, 일반 선반과 벽선반, 줄리 유닛(jolly units), 거울 등 다섯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된 가구 컬렉션으로 시대의 생활 양식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섬세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그 기능이란 개개의 가구를 기술적으로 결합하는 테크니컬 채널(technical channel)과 백라이팅(back lighting) 시스템이다. 테크니컬 채널은 전선들이 훑물스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한 일종의 전기 배선관으로 가구의 뒷편으로 물러나 있으며 그 안에 백라이팅을 가능하게 하는 조명원을 가지고 있다.

이 눈에 띄지 않는 배선관으로 인해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 버린 텔레비전 세트, VTR, 스피커,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 전기 기기의 자유롭고 깔끔한 배치가 가능해졌다. 게다가 가구 뒤로부터 퍼져나오는 조명은 빛의 양과 느낌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을 연출케 한다. 부드럽게 퍼지는 빛으로 소중한 것들이 놓여있는 열린 공간을 우아한 거실로 만들기도 하고, 보다 밝고 집중적인 조명으로 컴퓨터 작업



1. 줄리 유닛. 수납함 내용물에 따라 측면과 정면을 각기 이용할 수 있고, 선반의 기능에 따라 단순 수납공간에서 작업대로의 변형이 자유롭다.
2. 케이블이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각각의 가구에는 작은 구멍을 내었고 가구 뒤쪽으로 배선을 숨겨 놓았다.
3. 사이드보드, 일반 선반과 벽선반, 줄리 유닛, 거울 등 다섯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된 뉴컨셉 컬렉션
4. 정면의 대체로운 변형이 가능한 줄리 유닛
5. 선반 뒤에 숨겨진 테크니컬 채널과 백라이팅 시스템으로 독특한 분위기가 연출된 선반



이 가능한 일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뉴컨셉'은 절대 혼자서는 변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기능과 분위기로 변신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미니멀리즘 가구이다.

### The Acerbis 'New Concept' - Furniture for the Users

Acerbis's 'New Concept' collection comes closer to minimalist furniture not only in the way it looks but also reflecting situational aesthetics. Lodovico Acerbis, the representative and the designer of over 100 years-old Italian furniture manufacturer Acerbis International s.p.a., has been a renown figure in the business for his consistent effort in creating designs connecting tradition-innovation, and context-situation in furniture design.

His latest New Concept project, consisting of five components such as sideboard, wall shelves, shelvings, jolly units, and mirrors, shows careful considerations for new functionalities for the new lifestyle of contemporary users. The technical advantage implemented, so-called technical channel and back lighting system, neatly hides away unsightly electrical wires after the installation of lights as well as allowing wireless backlighting and other electric appliances possible. It opens up a new possibility to control subtle lighting effects especially in the open space, where various applications of lighting can create variously desired interior atmosphere. New Concept is a stationary interior in itself but bears multiples of possibility for functional and atmospheric changes according to the users. 📍



**로도비코 아세르비스(Lodovico Acerbis)** 1939년 이탈리아 알비노(Albino) 출생, 1870년 목공소로 시작, 이제는 세계 최대의 대리점망을 갖고 있는 가구디자인 회사로 성장한 아세르비스 인터내셔널(Acerbis International spa.)의 대표이다. 그는 밀라노 대학(Milian University)에서 경제를 전공했고, 1977년부터 지오토 스토폠피노(Giotto Stoppino)와 함께 아세르비스의 주요 디자인을 개발해왔다. 그의 디자인들은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런던의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 뮌헨의 Die neue Sammlung Staatliches Museum für Angewandte Kunst, 시카고 현대미술관(Museum of the Contemporary Art, Chicago) 등에 영구 전시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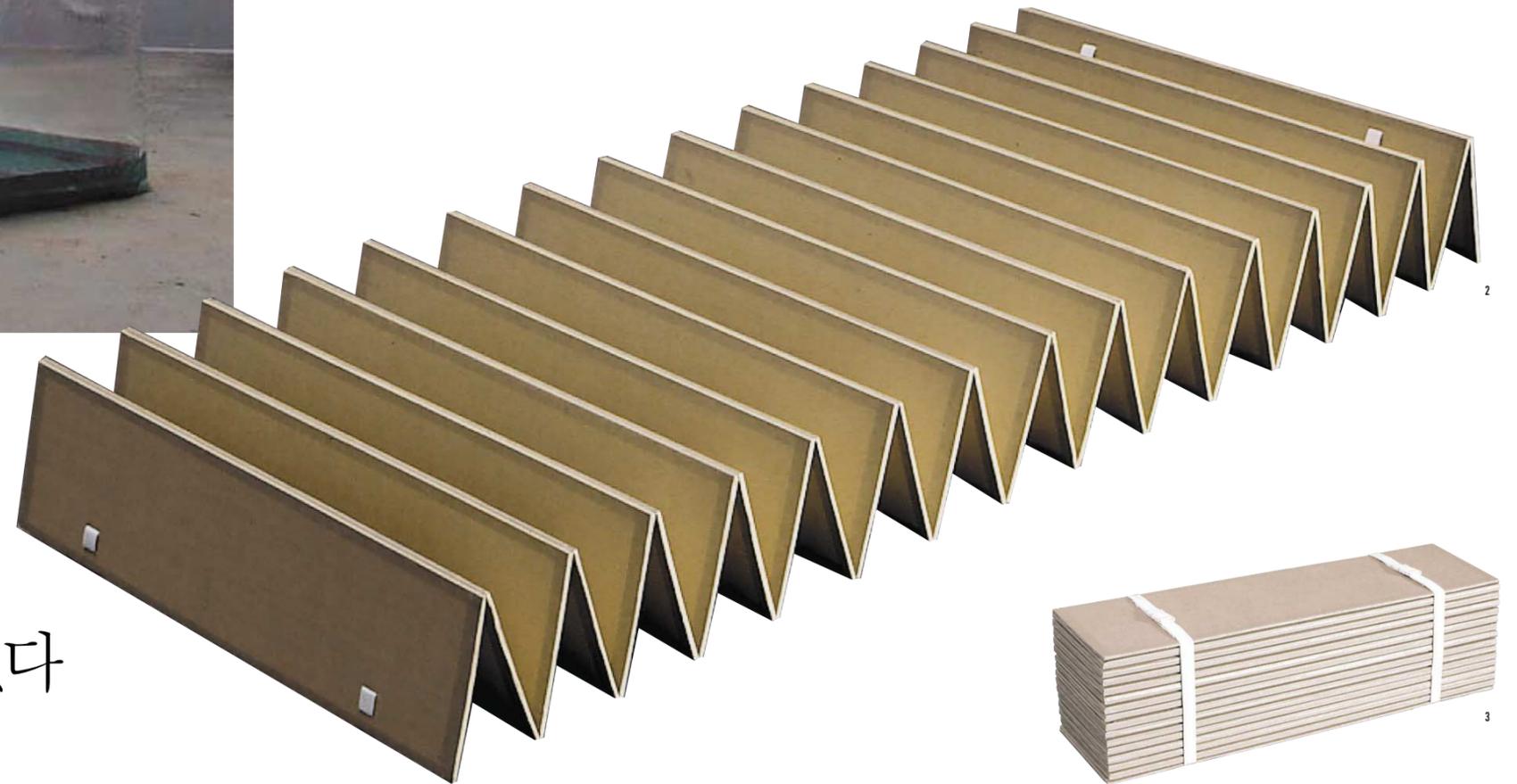
1. salone del mobile 2000(Milano)에 전시된 리빙 유닛(Living Unit). 하나의 침대, 하나의 책상, 몇 개의 수납 박스로 구성된 생활공간을 텐트의 창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투명한 덮개로 단위화 함으로써 마치 캡슐과 같은 형태의 미래형 '집'의 전망을 제시한다.

2. 3. 타라베드. 아코디언처럼 접혔다 펴졌다 하는 7mm 두께의 주름 접힌 판지로 구성되어 있어 누울 때는 넉넉하지만 접으면 이동이 쉬운 작은 꾸러미가 된다.

사막의 베두인족에게 필수품은 뿔뿔이해도 낙타, 그리고 어디서나 쉬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움직임이 있는 집, 천막이다. 오아시스를 찾아 헤메 다녀야만 했던 그들에게 불박이 집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들의 후에 21세기의 유목민들에게도 이사가 아니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집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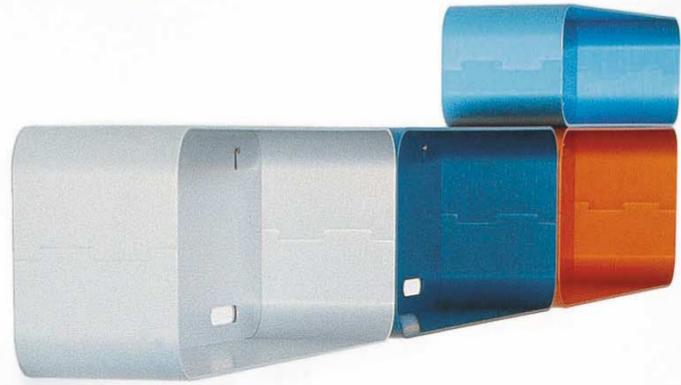
올해 봄, 밀라노와 취리히, 뉴욕 등지에서 선보인 타라(tara)의 리빙유닛(living unit)은 우리에게 그것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님을 얘기해준다. 리빙유닛은 하나의 침대, 하나의 책상, 몇 개의 수납 박스로 구성된 이동 가능한, 극소형 생활공간의 상징적인 재현이다.

투명한 덮개가 씌워진 리빙유닛 내부를 구성하는 타라박스(tarabox)와 타라침대(tarabed)도 이채롭다. 산화 알루미늄 재질의 새로운 단위 수납 시스템인 타라박스는 크기와 색이 다른 5개의 수납 상자로, 몇 개든지 원하는 모양으로 자유롭게 결합시킬 수 있으며 물에 견디기 때문에 부엌과 욕실용으로도 가능하다. 타라침대는 아코디언처럼 접혔다 펴졌다 하는 7mm 두께의 주름 접힌 판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그재그로 보이는 옆모습은 카드로 만든 집을 연상시키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넉넉히 누울 수 있는 길이지만, 접으면 이동이 쉬운 작은 꾸러미



특집 | 프로젝트

# 리빙 유닛 이렇게 작은 집도 있다



가 된다.

유목민들에겐 이동에 쉽다는 것과 이를 위해, 작고 가벼워야 한다는 명제가 항상 쌍으로 붙어 다닌다. 30대의 젊은 스위스 출신 디자이너들이 만든 타라의 제품들은 그러한 명제에 더없이 충실하다. 발레리 조미니(Valérie Jomini)와 스타니슬라스 짐머만(Stanislas Zimmermann)은 새로운 유목민, 젊고 기동력이 필요한 도시 거주자들을 위해 작고, 가벼우며 이동이 쉬운 가구를 디자인하고 생산, 판매하는 회사 타라를 세워, 재기 발랄함과 미래를 바라보는 진취적이며 독창적인 전망이 담겨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www.tarabox.com](http://www.tarabox.com)

### Living Unit - As Small as a House Can be

For Bedwin nomads, the two essentials of survival are camels and sleeping tents. What would a house look like if the Bedwin had inherited to their 21st century descendents? At this year's 'tara's Living Unit' collection which had been showcased in

Milan, Zurich, and New York, the nomads' good old living portable house was reborn. Consisting of one pieces of bed and desk with a few storage items, it revived the symbolic meaning of the minimal lifestyle.

Aside from the foldable tarabed made of ruffled cardboard papers and covered with transparent sheets, anodized aluminum storage cases looks attractive in five different colors allowing multi-usage thanks to its jigsaw joints. To be served for full comfort of users at its stretch, the items can be folded easily for portable carriage.

Small and light are the main issue for the 30 something Swiss-born creators and designers of Tara products. Valerie Jomini and Stanislas Zimmermann transformed the idea of nomadic house culture to that of the contemporary young generation fast-moving and increasingly mobile. Tara is continuously looking forward to creating designs for the innovative future and young people. [www.tarabox.com](http://www.tarabox.com)



발레리 조미니(Valérie Jomini)와 스타니슬라스 짐머만(Stanislas Zimmermann)은 1970년 스위스 태생으로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건축을 공부하였다. 1996년에 건축 디자인 사무실을 열었고 1997년에 tara라는 이름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왼쪽 | 타라박스는 필요와 공간의 요구에 맞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벽에 붙이거나 서로 맞물리는 이름새로 여러 개를 원하는 모양으로 쌓아올려 수납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래 | 책상으로 구성된 타라박스. 높이와 넓이를 72cm 단위로 단위화 했기 때문에, 타라박스는 책상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사무용 테이블을 위한 7개의 서랍이 달린 새로운 타라박스를 같이 이용하면 편리하다.



# 현대 조각품으로 변신 키친 큐브



왼쪽 | 뒷쪽에서 본 키친 큐브의 닫힌 상태

왼쪽 아래 | 뒷쪽에서 본 키친 큐브의 열린 상태

아래 | 앞에서 본 완전히 닫은 상태의 키친 큐브. 건축 재료를 절약할 수 있고 같은 크기의 전체 평면공간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본 기틀 외에 요구되는 수납 공간은 전체 실내구조에 맞는 별도의 벽면형 수납시설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베르트 방엔(Norbert Wangen)** 1962년 생. 아헨 공대와 뮌헨 공대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그의 작업으로는 무대건축 외에 체코슬로바키아, 스위스 등에 개인주택 건축, 그리고 '아틸라(Attila)'와 같이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된 가구들이 있다.

우리들이 흔히 접하는 부엌의 모습은 움푹 패인 싱크대, 튀어나와 있는 수도꼭지, 조리기구와 얽혀 있는 가열대, 수많은 손잡이가 달린 수납장, 여기저기 놓인 그릇과 컵 등 무질서와 혼돈이다. 이러한 혼돈을 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단순하게 정리하는 동시에 주거공간도 넓게 살린 해결책이 바로 건축가 노베르트 방엔(Norbert Wangen)의 '키친 큐브(Kitchen Cube)'이다.

부엌 전체가 단순한 직사각형 상자로 되어 있어 마치 미니멀리즘 조각처럼 보이는 이 234×93×70 cm 크기의 미니부엌은 싱크대, 가열대, 조리대, 전자 렌지 겸용 오븐, 식기세척기, 냉장고, 수납공간 등 '보통' 부엌의 기능을 모두 담아내고 있으며 5인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싱크대와 가열대는 뚜껑을 덮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식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조리대는 이동할 수 있어서 밀어 넣기만 하면 홈 바(Home Bar)로도 사용할 수 있다. 키친 큐브는 이와 같이 부엌기기와 가구들이 차지하는 기본적인 공간을 최소화한 경제적인 가구이다.

게다가 기존의 일반적인 부엌은 아무리 크더라도 한 두 사람 정도 이용하면 비좁아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과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데 비해 키친 큐브는 부엌과 주거공간이 같은 공간에 있으므로 요리를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TV를 볼 수도 있으며, 거실에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거나 소파에 앉은 남편이나 아이

들, 방문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

"가장 적당하게 삶은 파스타, 좋은 올리브유, 신선한 파마젠 치즈와 마늘, 소금만으로도 매우 맛있는 파스타 요리를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엔은 가장 기본적인 것, 단순함이 지니는 숨은 힘과 미를 선호한다. 키친 큐브는 바로 이러한 미학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기술과 기계들의 전 시장이 되어버린 부엌을 기존 이미지에서 해방시켜 단순한 공간으로 만들어낸 셈이다.

이동할 수 있는 탁자-조리대로 부엌 전체를 눈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키친 큐브는 스위치만 끄면 모든 정보가 사라져버리는 컴퓨터 세대, 더욱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뚜껑을 닫아버리면 업무의 스트레스까지 시각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노트북 사용자가 늘어나는 미래 세계의 감성에 어울리는 부엌이다. 특히 점점 늘어나는 스튜디오나 원룸 시스템으로 된 공간에 보다 적합한 이 키친 큐브는 현대 조각품 같은 단순한 형태의 아름다움 덕분에 부엌을 전체 생활 공간의 하나로 끌어들이고 있다.

1997년 뮌헨에 있는 아파트 2개를 하나의 큰 원룸 시스템으로 개조하는 작업 중, 부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탄생한 키친 큐브의 아이디어는 현재 부엌 공간의 크기에 따라 천연 편암판 조리대로 된 고급형 모델에서부터 흑단 चे리 등 나무와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대 컴비네이션형,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퓨어형 등 다양한 재료와 크기의 모델들이 새로운 세대를



아래 | 모바일 조리대를 연 상태

맨 아래 | 모바일 조리대를 연 상태. 식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조리대 아래에 가스나 전기 가열대와 싱크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싱크대의 수도꼭지는 모바일 조리대 구조를 위해 끌어당기는 구조로 디자인되었다. 왼쪽부터 냉장고, 식기세척기, 전자 렌지 겸용 오븐, 서랍, 수납공간이 숨어 있다.



위해 준비되어 있다.

[www.norbert-wangen.com](http://www.norbert-wangen.com)

### Morphing into Contemporary Sculptures : Kitchen Cube

Composed of simple cube boxes, Nobert Wangen's Kitchen Cube appears like a set of contemporary sculpture. This mini-kitchen is equipped with sinks, a stove, cooking space, a microwave/conventional oven, a dish washer, a refrigerator, and storage space and is enough to prepare meals for up to five-member family. The cooking space is designed to be mobile and multi-purpose. It can be used as dining table and home bar as users simply push and pull the table top, while its reduced style reckons a piece of environmental contemporary art object.

First introduced in 1997 for two apartment buildings interior project in Munich, this kitchen initially had aimed to create a fully-functional kitchen suitable for one-room studio space. Kitchen Cube especially appeals to the future computer generation, who freely set and erase the working environ-

### 특집 | 프로젝트

“메트로쿠보는 하나의 덩어리로 어느 방향에서 보든 항상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매우 특이한 디자인과 복잡한 선을 보여주는 다른 차들이 전달하는 뜻밖의 효과와는 달리 우리는 메트로쿠보를 위해 간단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어 차체의 통일된 형태를 도와주는 단순한 디자인을 우선하였다”

최근 발표되는 신차들 중에는 다이믈러-크라 이슬러의 A 클래스나, 르노 사의 트윙고와 캥구, 피아트 사의 물티플란, 오펜 사의 야기라, 현대의 아토즈, MCC의 스마트 등 미니 벤 형의 다목적 차량이 눈에 많이 띈다. 피넨파리나 사의 컨셉 카 메트로쿠보(이탈리아어로 세제곱미터를 의미)도 이러한 미니 벤 형의 시티카로 길이 258cm, 폭 178cm로 정육면체에 가까운 외형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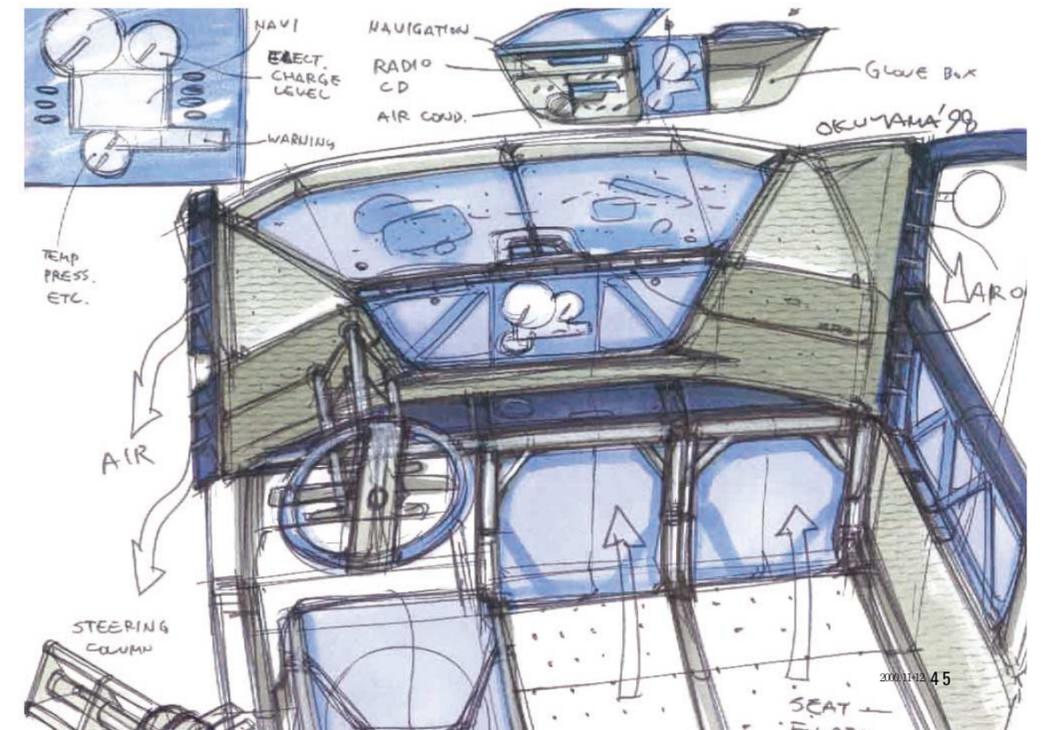
메트로쿠보는 국제 자동차 뉴스(Automotive News International)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컨셉 카 상(Concept Car of the Year Awards) 4개 분야 중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부분에서 1등, 환경 컨셉 부분에서 2등, 안전도 부분에서 3등을 수상하는 등 다채로운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가 그렇듯이 메트로쿠보도 모

터, 배터리, 변속기, 전동장치 등 기계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여 자동차의 실내공간을 확대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미쉐린사에서 개발한 새 타이어 기술인 파스 시스템(Pax System)을 도입하여 타이어들이 차지하는 외부면적을 줄이고 서로 다른 타이어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보조타이어를 따로 차에 준비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 이 파스 시스템으로 확보된 공간은 같은 크기와 폭의 타이어가 설치된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경우 14%, 즉 22%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터닝 사이클(turning cycle)을 9m에서 8m로 줄여주기 때문에 교통량이 심한 곳에서 유리하다. 보다 넓은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한 두 번째 해결책은 기계 요소들을 가능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래쪽 바닥을 평면으로 처리한 점이다. 이렇게 얻어지는 공간은 220cm<sup>2</sup>이다.

좌석은 레일 시스템으로 설치하여 사용 목적에 따라 좌석의 개수(최대 5개), 방향 및 구성을 바꿀 수 있다. 좌석 자체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파이프 구조와 특수 젤을 이용한 쿠션으로 디자인 되어 있어 시각적, 기능적으로 볼륨을 줄여준다. 주차시 필요한 공간을 줄이기 위해 3개의 문들은

# 야심찬 환경 프로젝트 메트로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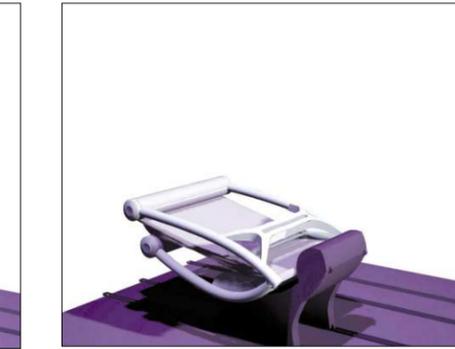


핸들 및 계기판 스티디 스케치



1

1. 내부 공간 구성 및 문의 개폐 기능을 보여주는 3D 그래픽
- 2, 3. 사용 목적에 따라 방향을 바꾸거나 접어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좌석
4. 메트로쿠보 내부 운전석 공간
5. 메트로쿠보 외관



2

3

**핀인파리나(Pininfarina spa.)** \_ 1930년 자동차와 비행기에 매혹되었던 바티스타 핀인파리나(Battista Pininfarina)가 자동차 특수 바디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했다. 현재는 그의 아들인 세르지오 핀인파리나(Sergio Pininfarina)가 자동차 스타일링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동차 기술개발, 스테디 및 컨셉 카 개발 등 자동차 디자인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체 생산 시스템을 갖춰 연간 4만 대의 자동차와 자동차 바디를 생산하고 있고, 1981년부터는 디자인 스튜디오 및 리서치 센터(Pininfarina Studio Ricerche spa.)가 독립하여 컨셉 카 디자인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알파로메오나 히스파니아, 란시아, 피아트 등 자동차 회사들을 위해 소량 생산되는 특수모델들을 개발하였는데, 1947년 개발한 시스탈리아(Cistalia)는 뉴욕의 현대미술관(MoMA)에 상설전시되고 있다. 1950년대부터 페라리 사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핀인파리나 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카 디자인 및 개발 업체로 그 위치를 굳혀 '페라리 베를리네타' '페라리 디노' '페라리 마라넬로' '페라리 테스타로사' '페라리 모듈로' '페라리 모데나' 등을 디자인하였다.

클라이언트로는 페라리를 비롯 피아트, 재규어, 푸조(406), 혼다, 대우(Tacuma) 등이 있다. 최근 이러한 스포츠카 유형 외에도 이탈리아 국립 연구소(CNR)와 공동으로 교통문제,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저공해 차량인 CNR-EtaBeta 모델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메트로쿠보는 이러한 연구와 다기능형 차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델로 개발된 프로토타입이다.



4



사진 | 엔조 이사이어(Enzo Isaia)

5

미닫이 방식, 접는 방식 등 모두 다른 방식으로 여닫게 되어 있다. 넓은 면적의 창문은 무거운 유리 대신 항공공학이나 레이싱카 산업에서 이용되는 이조클리마 에어로스페이스(Isoclima Aerospace)에서 생산한 폴리카본(polycarbon)을 사용하여 50% 정도 무게를 줄였다. 이외에도 접는 방식의 라멜라 선루프(Lamella Sunroof)가 설치되어 있다.

차의 외장은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헤드라이트와 깜박이 등 발레오 에클라이라제(Valeo Eclairage)사에서 개발한 원기동형 조명장치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는 차의 네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다. 1978년부터 이탈리아 국립 연구소와 공동으로 주도하는 교통문제 및 에너지 절약 등 환경보호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리사이클이 가능한 알루미늄 프레임 사용, 공해 배출이 적은 엔진개발과 시내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며, 내부 공간의 다기

능 등을 기본 컨셉으로 하는 최소 볼륨의 최대 용적이 메트로쿠보의 특징이다.

[www.pininfarina.com](http://www.pininfarina.com)

**Metrocubo by Pininfarina :**

**An Ambitious Environment Project**

Meaning cubic meter in Italian, Metrocubo is the new concept car from the legendary Italian car maker Pininfarina. Metrocubo, taking nearly a shape of a cube, measuring 258cm in length and 178cm width, is a winner in 4 separate categories of the Concept Car of the Year Awards, including the best interior design, second prize in environmental concept, and third prize in safety features. Reflecting its collaboration with Italy's National Transportation Institute since 1978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Metrocubo uses recyclable aluminum frames, pollution-minimizing engine, and

space-saving interior-exterior design.

Pininfarina s.p.a was established in 1930 by Battista Pininfarina, the founder of the manufacturer who was deeply inspired by auto and airplane design. Currently his son Sergio Pininfarina i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as well as design creation, including care styling, auto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ncept cars. Among the clients of Pininfarina are Fiat, Jaguar, Peugeot(406), Honda, and Daewoo (Tacuma).

Aside from sportscar designs which Pininfarina has been working on for its world class clients, the company also collaborates with Italy's CNR in new concept car productions that are energy-saving and environment-friendly.

[www.pininfarina.com](http://www.pininfarina.com)